

산업자원부 장관 초청 조찬간담회 개최

진흥회는 지난 4월 19일 오전 8:00 서울팔레스호텔에서 신국환 산업자원부 장관 초청 조찬간담회를 개최하여 중전기산업의 수출동향 점검과 업계의 애로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현대중공업, 효성, LG산전, 전력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학계 등 중전기 수출업체 및 관련기관 대표 40여명이 참석하였다.

신 장관은 간담회에서 “2001년 전체 수출은 12.7%가 감소하는 등 전반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중전기산업의 수출은 4.8% 증가하는 등 다른 산업과 달리 수출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앞으로도 우리 업계의 지속적인 신기술 개발과 품질향상을 통해 꾸준한 수출활성화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하고 “정부에서도 업계의 수출활

동에 대한 지원과 수출애로 및 ‘대외무역장벽 해소’를 위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며 또한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업계의 애로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조치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한편 진흥회 김준철 회장을 포함한 업계 대표들은 국가기간산업이며 전체 산업의 중추 신경망이자 핵심인 전력분야를 담당하고 최상의 제품 생산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중전기 업계에 대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관심을 당부하고 중전기산업이 내수위주에서 수출선도산업으로의 변화를 도모함에 있어서 정부의 꾸준한 정책적인 배려를 요청하였다.

(문의: 통상전시팀)

동유럽 시장개척단 활발한 상담활동 전개

진흥회는 지난 4월 7일부터 17일까지 ‘동유럽 시장개척단’을 파견하여 총 1천8백만달러 규모의 수출상담실적을 올렸다.

동유럽시장개척단은 최근 들어 전력기자재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러시아·폴란드·헝가리 등 3개국을 방문, 현지 바이어 및 전력청 관계자와 총 142건의 수출상담을 벌여 1천8백만달러 규모의 수출상담실적을 거두었다.

이번 동유럽시장개척단은 영화산업전기제작소, 송암시스콤, 신정우산업, 유성계전 등 10여개 업체가 참가, 산업용 전기기기, 발·변전용기기, 송·배전용기기 등 국산 전력기자재의 우수성을 홍보했다.

이번 시장개척단에선 특히 유성계전(계전기류), 송암시스콤(전력전자시스템), 신정우산업(변압기 방열판), 영화산업전기제작소(MOF) 등이 현지 바이어와 수출상담을 통해 각 업체마다 150만달러 이상의 상담

실적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울러 시장개척단 일행은 귀국길에 독일에서 개최된 하노버박람회도 참관하였다.

러시아·폴란드 등 동유럽지역은 우리나라 보다 20여년 빨리 750kV 송전을 시작했으며 현지에서 수출상담을 벌인 결과 국산 전력기자재가 품질과 가격면에서 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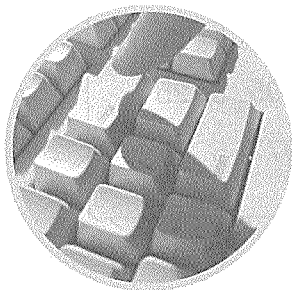
(문의: 통상전시팀)

제1차 전기기기 PL 전문가양성과정 교육 실시

진흥회는 지난 4월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한국전기연구원 교육실(의왕 소재)에서 관련 업계의 교육신청자 30명을 대상으로 금년도 제1차 전기기기 PL 전문가양성과정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 교육은 진흥회에서 전기산업계의 PL대책 추진능력 배양과 전기기기 안전성 향상 도모 및 사고발생시 대처능력 제고를 목적으로 지난 3월8일 중소기업청으로부터 PL 전문가양성과정 교육기관으로 지정 받아 올해에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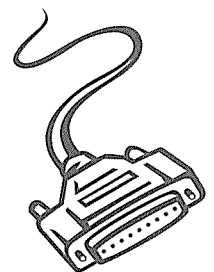
10월까지 6차례(1회당 40시간 이수)에 거쳐 추진되는 교육사업이다. 제2차 교육은 5월13일부터 17일까지 동일장소에서 실시될 예정으로 교육신청 등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청(www.smba.go.kr→PL교육지원신청) 또는 진흥회(www.koema.or.kr→소식망) 홈페이지를 검색하면 된다.

(문의: 기술진흥팀)



진흥회 Homepage 이용안내

Homepage - <http://www.koema.or.kr>



회원사 창립을 축하합니다.

회 사 명	대 표 자	창 립 기 념 일
(주)삼능전기제작소	한 예 섭	1955. 5. 01
(주)인아오엠	신 계 철	1979. 5. 02
신한전기공업(주)	박 길 상	1966. 5. 09
대륙전선(주)	안 재 문	1968. 5. 10
(주)삼흥전기	정 순 숙	1990. 5. 10
아주콘트롤시스템(주)	임 태 현	1994. 5. 10
삼일변압기(주)	안 경 옥	1970. 5. 12
(주)효성	이 돈 영	1962. 5. 14
LG전선(주)	한 동 규	1962. 5. 15
선광하이텍(주)	서 종 원	1990. 5. 15
이엠티	조 행 훈	2000. 5. 15
삼진변압기(주)	김 문 환	1975. 5. 17
(주)성신	이 해 종	1973. 5. 21
(주)한국절연물산	김 순 자	1979. 5. 22
조양전기	조 명 운	1989. 5. 24
남양비전(주)	곽 정 교	1995. 5. 25
(주)유유	정 순 환	1977. 5. 27